

## 국립마이스터고를 찾아서

〈하〉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공동기획: 중소기업청 전자신문

# 프로젝트식 교수법으로 기술 정예인력 양성

■박인원 교장  
“기초에서 응용까지  
실력 갖춘 인재 배출”

국립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 들어서면 곧게 펼쳐진 널찍한 교정에 잘 가꿔진 금송 10여 그루가 한 눈에 들어온다. 마치 대학 캠퍼스이라도 온 듯 웅장한 석조 건물이 인상적이다. 이 학교는 1974년 개교 이래 2만5000여명의 기술 기능인을 배출한 명문 공업고등학교로 정평이 나 있다. 국립마이스터고 지정으로 제2 도약기를 맞고 있는 이 학교는 세계 최고 실무 중심형 창의적 기계 기술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 기술자, 기술전수자, 최고 경영자 육성’을 목표로 창의력 있는 글로벌 기술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 산업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분야에 필요한 숙련된 기술·기능인을 양성, 다양한 유망 산업 분야 핵심 생산기반 기술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정예 인력을 배출한다는 방침이다.

## 5축 가공기 등 첨단 기자재로 살아있는 교육 대기업·우량 中企와 제휴 조기취업 등 지원

마이스터고로 전환되면서 학교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영 마이스터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체제로 바꿨다.

학급 수를 기존 17학급에서 15학급으로 줄이고, 학급당 인원 수도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첨단 실습장으로 재조직했다. 금형 실습에 필요한 5축 가공기 등 첨단 기자재를 들여놓고, 노후 기자재도 교체했다.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늘리고, 해외 산업체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한편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크게 늘렸다.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젝트식 교수학습방법 연수를 실시하고, 혁신리더과정과 해외직업교육과정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프로젝트 학습을 통한 영 마이스터 경진대회와 초기 기능자 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역량을 높이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해외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과 필리핀 어학연수 지원, 해외 산업체 체험학습도 도입했다.

학교도 기존 기계과, 신소재정보과, 전기과, 전자기계과 4개 학과 5개 과정을 폴리메카닉스과, 컴퓨터응용금형과, 산업플랜트과, 메카트로닉스과 4개과로 개편했다. 내년부터는 로봇자동화과를 신설, 새로운 영 마이스터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학생들의 조기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업체 및 협·단체와 교류도 활발하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TS, 이노비즈협회 등과 양해각서(MOU)를 교환, 취업처 확보를 위한 물꼬를 텄다.

이날 찾은 CNC 밀링 실습실에서는 DNC를 활



전북기계공고 손영대 교사(왼쪽)의 지도로 학생들이 스마트그리드를 이용해 분산형 전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고 있다.

용한 기계부품 가공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었다. 삼성전자 입사가 확정된 노수빈양(2학년)은 “인문계고를 나와도 취직이 안 되는데, 마이스터고는 100% 취업이 된다고 해서 들어오게 됐다”며 “앞으로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아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걸음을 돌려 전기응용실에 들어가자 스마트그리드 관련 교육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손영대 교사는 “기본적인 이론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10년 후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성 및 조직 적응 등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기계공고는 전략적으로 대기업 및 도 내외

우량 중소기업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학생의 회사 정착률을 높이고 재교육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인턴십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방학 중에는 장기 과정을 개설하고, 회사 필요에 따라 학기 중 단기 과정을 운영 중이다. 가공 실습에서는 협약 회사에서 공개된 도면을 갖고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현장성을 높였으며, 업체 관계자가 학교를 방문해 직접 기술지도에 나서기도 한다.

전북기계공고는 앞으로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과 취업 약정을 확대하고, 만족도 높은 취업업체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익산=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기계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자 기초입니다. 기계분야 원천 기술을 겸비한 훌륭한 산업기술자와 기업가정신,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박인원 국립전북기계공고 교장은 “마이스터고 취지에 맞도록 산학 연계를 강화해 산업체 요구를 충족시키고 학생 만족도가 높은 취업처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개방형 공고를 거쳐 이달 초 부임한 박 교장은 30년 넘게 자동차 산업에 몸 담았던 전문가다. 옛 신진지프(현 쌍용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신차 개발 업무를 담당했으며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상품기획실장 등을 지냈다. 제일모직에서는 케미컬 부문 자동차 소재사업부 고문을 역임했다. 자동차 관련 소재부터 생산, 마케팅 분야까지 모든 업무를 두루 거친 자동차 업계 산중인이다.

“현 공업계 교육이 과연 산업체 표준에 맞춘 것인지 아닌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공업계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기초에서 응용까지 제대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 표준에 맞춰 전공과목 교육과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학협력에 대한 견해도 풀어냈다.

그는 “산학협력은 어느 한 쪽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는 지속될 수 없다”며 “학교와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학교 입장에서 우수 신입생을 회사에 공급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업체는 체험학습과 실습장비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열악한 지역 산업 인프라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전북은 농도로서 산업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며 “그나마 몇 개 있는 대기업은 장치산업으로 인력 수요가 많지 않고 중소기업 수도 매우 적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과 취업 약정을 확대하고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취업 대상 업체를 개발해 나가겠다”며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수업도 함께 정착시켜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원 교장은 “마이스터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비전 제시와 내부 프로그램 선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선미기자

## 원천기술 보유한 기술 기능인 길러내

### ■기술영재 양성 프로그램이란

국립전북기계공고의 기술영재 양성 프로그램은 전문 기능을 극대화하고,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술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

산업 현장과 연계된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전문가 및 산업체 인사 초빙 교육과 평가도 이뤄진다.

영재 선발 과정은 까다롭다. 입학 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3배수를 선발한 후 입학 후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1학년 1학기 후 최종 선발한다. 방과 후 학습은 물론이고

방학 중 합숙 훈련을 통해 관련 전문 기술을 집중 교육한다.

현재 금형, 폴리메카닉스, 메카트로닉스, 제품디자인, 모바일 로봇틱스, CNC 선반 등 9개 직종에 걸쳐 54명의 기술영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날 찾은 기술영재동 모바일 로봇틱스 실습실에서는 로봇 제어기술을 개발, 실험하는 학생들이 모습에 분주했다.

이주훈군(2학년)은 “미래는 로봇이 좌우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기술이 축적되면 사회에 나가 로봇을 제작하는 업체를 설립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이병근 기술영재부장은 “재교육 절차 없이 산



국립전북기계공고 기술영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학생들이 자신이 개발한 로봇 제어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

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외부

에서도 학생 수준을 보고 놀라다며 기술영재반 학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13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이러스 백신만 연구**했습니다

# 백신 독립 선언!

# 터보백신

가볍고, 빠르고, 잘잡는 Antivirus Software

**터보백신**  
클라이언트, 서버

**터보매니저**  
자산관리, 원격제어

**터보백신USB**  
바이러스 감염방지, 무료업데이트

**터보백신모바일**  
악성코드 탐지, 스팸차단

**터보백신온라인**  
악성코드 탐지, 홈페이지 탑재

**1994** 대한민국 **최초** 윈도우 전용백신 개발

**2002** 터보백신 Ai, 터보백신 매니저 출시

**2005** 산업자원부 홈 네트워크 보안 사업 수주

**2007** 터보백신 인터넷 시큐리티 출시

**2008** 터보백신 GS 인증 취득

**2010** 터보백신 듀얼엔진 경량화 제품 출시

**2011** 터보백신 **USB**, 터보백신 **모바일** 출시  
World IT Show 2011 전시회 참가  
일본 도쿄 '빅 사이트' 전시회 참가  
터보백신 기업용 총판 계약

**개발사** **EVERYZONE**  
(주)에브리존  
김준영 팀장  
jykim@everyzone.com  
010-4216-6145  
02-3274-2700  
www.everyzone.com

**기업 총판**  
**terms** **ITB**  
(주)아이템즈 & (주)터보이야기  
신원철 과장  
wshin@itemz.co.kr  
02-2057-5006  
www.itemz.co.kr

**협력사 문의** 02-2057-5006